

## 백경호 개인전에 부쳐 (김인선)

백경호 작가는 회화를 다루고 있지만 오랜 역사의 회화 장르가 지닌 권위와 시간으로부터의 중압감을 떨쳐 버린 지 오래일 수도 있겠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이미지로서만 다루지 않았다. 그의 작품은 특히 회화 표면의 지지체인 캔버스를 그림으로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오브제처럼 혹은 의인화하여 다루었던 독특한 구성 형식으로 잘 알려져 왔다. 수 많은 매체들이 전통의 재료와 장르를 극복해내고 있는 요즘이지만 이 작가에게 붓과 물감, 그리고 캔버스는 이미지를 보다 과감하게 다룰 수 있는 유희적 매체이다. 2015년도에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개인전에서 백경호 작가는 갖가지 기법을 구사하며 대상의 외형에 충실한 재현적 화면도 보여주었다. 작가는 20세기 초 소위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작가들, 가령 피카소나 마티스, 세잔 등이 구사한 회화 기법을 자신의 캔버스에 담아보는 실험을 하거나, 일상에서 대하는 인물, 풍경, 애니메이션, 물건 등이 별 연관성 없이 그의 화면 위에 구성되기도 했고, 낭만적인 기분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구사하는 등 회화가 지닌 무게감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그의 화면 속으로 흡수해버리기도 하였다. 동시에 원형과 사각형의 캔버스를 조합하여 캔버스를 의인화 하면서 작가가 즐겨 입었던 셔츠를 캔버스 위에 덧붙여서 캔버스 자체의 오브제성을 드러냄을 물론 그 자체에 남다른 생기를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를 구현하면서 회화의 중압감을 과감히 떨쳐버리기도 하였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작업 태도 때문에 나를 포함하여 많은 관람자들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해왔다.

백경호 작가는 2019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개인전 <사람 그림>에서 회화, 입체, 드로잉 등을 선보였다. 그는 이번 전시 속에서 이 모든 장르적 특징을 '그림'이라는 영역 안으로 흡수하였다. 그가 캔버스 위에서 물감의 다양한 발림이 생성하고 있는 상상력이 가미된 감정과 감각, 은유, 그리고 상기되는 기억 등은 새롭게 시도한 사람형상처럼 보이는 입체작품의 표면에서도 드러났다. 작가에 의하면, 붓이 지나가는 모든 흔적들은 하나 하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것이 작가만이 알 수 있는 주관적인 감흥일 수도 있고, 작가의 기준에서 정의된 대상일 수도 있어서 작가가 칭하는 모든 것이 객관화된 세상에서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우리가 백경호의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이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을 가까이 가서 관찰하기를 시도해야 한다. 캔버스 표면을 관찰하다보면, 작가가 붓을 진 몸의 움직임은 매개로 하여 붓과 물감, 그리고 캔버스를 물질 자체로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백경호 작가에게 대상은 이미지로서 구현되기 위한 구실일 뿐, 실상 그는 물감이 표면에서 어떻게 발려지는지, 얼마만큼 묻혀서 어느 정도 두께감과 얇기를 실행해 볼 수 있을지 등을 끊임없이 실험해 보는 어떻게 보면 유희적인 관찰대상이자 동시에 그가 대상화 하고 있는 장면 역시 회화의 재료로서 활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의 유희적인 태도는 그가 과감하게 적어놓은 이름이 그려진 작품 <Untitled><sup>2019</sup>를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장으로 가져온 작품들을 펼쳐놓았을 때 이 작업의 완성본은 놀라웠다. 진행 중인 작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그가 작업실에서 보여줬던 각종 회화 기법을 조금씩 화면에 열거해 보는 작품으로서 봤던 그 익숙한 작업은 표면의 한 부분에 커다랗게 '백 경 호' 라는 이름과 날짜가 기입되어 마무리 되어 있었다. 완성된 그림의 표면에 작가가 자신의 이름을 저렇게까지 큰 비율로 자신의 서명을 담을 수 있는 것에 주목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글자가 적힌 캔버스를 여러 면으로 분할하여 각 면에 시도했던 회화 기법의 나열은 저 이름 석자와 작품 완성을 지시하는 날짜의 기입을 위한 배경화면이 되었다. 그래서 작가의 이름 석자와 날짜를 지시하는 숫자가 화면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한 작가의 과감한 회화에 다시 한번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어쩌면 백경호 작가에게 아직도 유화물감은 그 어떤 매체보다 잠재력을 가진 신기한 물질 덩어리이고, 나는 당분간 관객으로서 작가의 여러 가지 시도 속에서 발견되는 작가 특유의 감각들

과 유머, 엉뚱함을 순수하게 마주해 보는 것이 즐거울 것 같다.